

제1강 현대국어 음운론 (1)

- 음운론 영역에서의 필수 정리 사항 -
1. 음운의 개념과 유형
 2. 개별 자음의 조음 방식상의 특징
 3. 현대 국어 자음과 모음 체계와 분류 기준
 4. 공시적·통시적 음운 변화
 - 1) 음운 변화의 공통 원리와 차이점
 - 2) 음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음운 규칙 도출 및 그 적용
 5. 현실 발음에 대한 음운 규칙 적용 및 표준 발음과 그 규정에 대한 이해

I. 음운(音韻)의 개념과 유형

1. 음운의 개념

- 1)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
- 2)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로, 말의 의미 차이를 가져오는 소리의 최소 단위.
 - (1) 음운은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 수가 각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가. /ɹ/, ɹ/: 국어에서는 각각 다른 음운이지만, 영어에서는 이 둘이 변별되지 않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되고 있다.
 - 나. 파열음의 유성음과 무성음: 국어에서는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지만, 영어에서는 대립이 인식되어 각각 다른 음운으로 인정된다.

3) 음성, 음운, 음향의 비교

	소리 유무		분절성	변별적 기능	비고	
음향	자연의 소리		비분절적	의미와 무관		
음성	언어음	개인적, 구체적, 물리적 소리	분절적		소리의 최소 단위	음운의 음성적 실현 단위
음운		사회적, 추상적, 관념적 소리		의미와 관련	변별적인 기능을 하는 소리의 최소 단위	

2. 음운의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들

1) 최소 대립쌍(minimal pair)

(1) 개념

둘 이상의 단어가 같은 위치에 있는 소리의 음성적 차이 때문에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최소 대립’이라 하고 최소 대립을 이루는 단어의 쌍을 ‘최소 대립쌍’이라 한다. 최소 대립을 이루는 단어는 같은 음성적 환경에서 분절음 수가 같아야 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 하나의 분절음만 달라야 한다.

(2) 최소 대립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 무리-우리 ~ 무리: □+ㄷ+ㄹ+ㅣ (분절음 수 4개)

우리: ㄷ+ㄹ+ㅣ (분절음 수 3개)

나. 무리-모기 ~ 무리: □+ㄷ+ㄹ+ㅣ (2개의 분절음이 다름)

모기: □+ㄴ+ㄱ+ㅣ (2개의 분절음이 다름)

2) 변이음(allophone)과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

(1) 변이음

하나의 음소가 음성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음가의 소리로 실현될 때 이 소리를 변이음이라 한다.

(2) 상보적 분포

가. 하나의 음소가 분포 환경이 다름에 따라 다른 음성적 실현을 보인다. 한 음소의 변이음들은 같은 음성 환경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배타적 분포를 보인다.

나. 이러한 배타적 분포를 이루는 말소리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음소를 이루면 이 말소리들은 상보적(상호 보완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 ‘상보적 분포’

(3)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변이음들은 의미 변별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

(4) 변이음의 예(참고)

가. [t], [p], [k]의 경우

ㄱ. 어두에 위치할 경우: [p], [t], [k](무성 파열음)

ㄴ. 유성음 사이에 위치할 경우: [b], [d], [g](유성 파열음)

ㄷ. 어말, 자음 앞에 위치할 경우: [p̚], [t̚], [k̚](불파음)

① 음소 /ㄷ/의 변이음

i) 다리[tari] 다시마[taɕima]

ii) 다듬질[tadumdzil] 오두막[odumak]

iii) 곧[koŋ] 돋보기[toɕp'ogi]

② 음소 /ㅂ/의 변이음

- i) 바다[pada] 백합[pɛkʰap]
- ii) 대부[tɛ:bu] 마비[ma:bi]
- iii) 밥[poɓ] 답[taɓ]

③ 음소 /ㄱ/의 변이음

- i) 감기[kɑ:ngi] 겨울[kjʌul]
- ii) 아가[aga] 무기[muigi]
- iii) 국[kuŋ] 소독[sodoŋ]

나. 음소 /ㅅ/의 변이음

- i) 모음 /ㅣ/나 반모음 /j/('ㅈ'의 첫소리) 앞에서: 경구개 마찰음[ç]
 - 시계[çi:ge] 시누이[çinui]
- ii) 모음 /ɨ/ 앞에서: 원순 경구개 마찰음[ʃ]
 - 선[ʃy:n] 침표[ʃy:mpʰjo]
- iii) 그 외 다른 환경에서: 치조 마찰음[s]
 - 사투리[sɑ:tʰuri] 소녀[sɔ:na]

3. 음운의 유형

1) 분절 음운(음소, 音素, phoneme): 자음과 모음 등

2) 비분절 음운(운소, 韻素, prosody): 소리의 길이, 높낮이, 강약, (연접, 억양) 등

(1) 자음, 모음에 얽혀 나타나 쉽게 쪼개지지 않지만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요소

(2) 유형: 소리의 길이(장단), 높낮이, 강약, 휴지(연접, pause), 억양 등

※ '연접, 억양' 등을 음운으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음

가. 소리의 길이에 따른 단어의 의미 분화의 예

말:(言), 말(馬, 斗)	눈:(雪), 눈(眼)	굴:(窟), 굴(石花)	밤:(粟), 밤(夜)
성:인(聖人), 성인(成人)	묻:다(問), 묻다(埋)	무:력(武力) 무력(無力)	가:정(假定), 가정(家庭)
말:다(禁止), 말다(券)	배:(倍), 배(腹, 梨)	손:(損), 손(客, 手)	솔:(옷솔), 솔(松)
굽:다(燻), 굽다(曲)	물:다(納), 물다(입에-)	걷:다(步), 걷다(收)	깊:다(補), 깊다(深)
달:다(火), 달다(甘)	발:(簾), 발(足)	벌:(蜂), 벌(罰)	

♣ 표준발음법의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 ♣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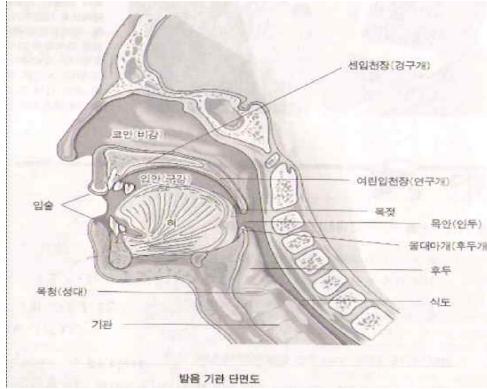
- (1) 눈보라[눈:보라], 말씨[말:씨], 밤나무[밤:나무], 많다[만:타], 멀리[멀:리], 벌리다[벌:리다]
- (2) 첫눈[천:눈], 참말[참:말], 쌍동밤[쌍:동밤], 수많이[수:마니], 눈멀다[눈:멀다], 떠벌리다[떠:벌리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반신반의[반:신바:늑/반:신바:니], 재삼재사[재:삼 재:사]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II. 현대 국어 음운의 체계

1. **발음 기관**: 조음 기관.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동안 말소리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일체의 기관



※ 음성 기관

- ① 발동부: 허파. 음성의 자료인 날숨을 제공하는 기관.
- ② 발성부: 후두, 성대. 날숨이 성대를 진동시키면 소리가 나는 기관.
- ③ 조음부: 성문을 나온 날숨이 입 안, 코 안에서 소리를 고르는 기관.
 - ㄱ. 고정부: 윗입술, 인두벽
 - ㄴ. 능동부: 아랫입술, 혀뿌리

2. **모음**: 공기의 흐름이 목안이나 입안에서 별다른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로 음절의 핵을 이룬다.

1) 단모음(monothong)

- (1) 발음하는 도중에 혀나 입술이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
- (2) 단모음의 분류 기준

가. 혀의 위치에 따라

- ㄱ. 전설모음: 혀의 최고점이 앞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 ㄴ. 후설모음: 혀의 최고점이 뒤쪽에 있을 때 발음되는 모음

나. 혀의 높낮이에 따라

- ㄱ. 고모음(폐모음): 입이 조금만 열려서 혀의 위치가 입천장 가까이 있는 모음
- ㄴ. 중모음: 혀의 위치가 중간쯤 되는 모음
- ㄷ. 저모음(개모음): 입이 많이 열려서 혀의 위치가 낮은 모음

다. 입술 모양에 따라

- ㄱ. 원순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모음
- ㄴ. 평순모음: 그렇지 않은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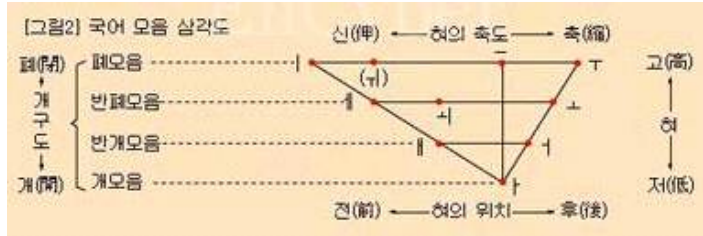
(3) 현대 국어의 단모음 체계(표준발음법 기준)

♣ 표준발음법의 단모음에 대한 규정 ♣

제4항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ㅓ, ㅕ’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혀의 위치 및 입술 모양 혀의 높낮이	전설모음(前舌母音; front)		후설모음(喉舌母音; back)	
	평순모음 (unrounded)	원순모음 (rounded)	평순모음 (unrounded)	원순모음 (rounded)
고모음 (high)	ㅣ [i]	ㄱ [ü, y]	ㅡ [ɨ]	ㅓ [u]
중모음 (mid)	ㅓ [e]	ㅛ [ø, ø]	ㅚ [ə:]	ㅜ [o]
저모음 (low)	ㅕ [ɛ]		ㅓ [a]	(ㅓ [ʌ, ɔ])

※ 현대국어 단모음 삼각도



(4) 특징적인 단모음 : /ɨ, ɯ/, /ɨ/, /e, ɛ/, /ɔ, ʊ/

가. 한국어의 /ɨ, ɯ/는 각각 /ㅓ/와 /ㅣ/ 그리고 /ㅜ/와 /ㅣ/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소리이다. 이 두 모음은 입의 벌어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전설모음이면서 원순모음이다. 그런데 인간의 신체 구조상 전설모음이면서 원순모음이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모음의 구별은 기본적으로 입의 벌어진이 우선하고 혀의 앞뒤 위치는 2차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의 /ɨ/ 발음도 입 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모음으로 발음되기보다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된다.

나. 한국어의 /ɨ/[ə] 모음은 특이한 모음이다. 이 소리는 /ㅡ/ 모음에 /ㅓ/ 모음의 [저설성]을 더한 것이다. 즉, 고모음이고 후설모음이면서 평순모음인 /ㅡ/ 모음을 약간 아래로 끌어내린 소리이다. 그리하여 ‘정말, 거짓말’ 등의 /ɨ/ 모음은 일상 구어에서 [증말, 그짓말] 등과 같이 발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ㅡ/ 모음으로 바뀌는 것은 [ɨ:]처럼 모두 장모음인 경우에 한해서이다. 단모음의 /ɨ/는 /ㅜ/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 원순성을 갖는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들은 한국어의 /ɨ/와 /ㅜ/를 자주 혼동한다.

다. /e/와 /ɛ/가 일상 언어생활에서는 거의 중화하여 발음하는 경향을 보인다.

라. 중부 방언의 경우 /ㅜ/를 /ㅓ/로 고모음화 하여 발음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이중모음(diphthong)

(1) 이중모음의 특성

가. 두 개의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할 때 둘 중 하나는 고모음이다.

나. 두 개의 모음이 각각 동등한 비율로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 이중모음의 성립 조건: 두 개의 단모음의 결합→주음과 부음의 형성⇒음절의 형성

♣ 이중모음 ‘ㄱ’의 음운적 지위에 대한 견해들 ♣

1. 상향이중모음으로 보는 견해 : 'ㄱ'에서 'ㄴ'을 반모음으로 보는 견해
문제점) /ㄴ/를 반모음으로 설정해야 하는 문제
2. 하향이중모음으로 보는 견해 : 'ㄱ'에서 'ㅇ'을 반모음으로 보는 견해
문제점) 여타의 'ㅇ(y)'계 이중모음이나 'ㄴ(w)'계 이중모음은 모두 상향이중모음인데 'ㄱ'만 하향이중모음으로 분류해야 하는 부담감
3. 수평모음으로 보는 견해 : 'ㄱ'의 'ㄴ'과 'ㅇ'을 온전한 모음으로 인정하는 견해.
문제점) 이중모음의 음운적 구성을 '반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것과는 모순됨

3) 활음

- (1) 모음과 자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 음
 - (2) 음성의 성질로 보면 모음과 비슷하지만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발음된다는 점에서 자음과 비슷하다
- 가. 혀가 /ㅣ/자리에서 다음 자리로 옮겨갈 때 발음되는 반모음: [j] 혹은 [y]
- 나. 혀가 /ㄴ, ㄴ/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갈 때 발음되는 반모음: [w]

3. 자음 : 공기가 목청을 통과해 목 안이나 입 안에서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

- 1) 자음의 언어 일반적인 분류 기준: 조음 위치(places of articulation)
조음 방법(manner of articulation)

2) 한국어 자음의 분류 기준

(1)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 가. 입술소리(양순음):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
- 나. 혀끝소리(치조음): 혀끝과 윗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
- 다. 센입천장소리(경구개음): 혀바닥과 센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 라.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 혀뿌리 부분과 여린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
- 마. 목청소리(후두음): 목청 사이에서 나는 소리

(2) 조음 방법에 따른 분류

<장애가 일어나는 방법에 따른 분류>

가. 장애음

- ㄱ. 파열음(폐쇄음):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 ㄴ. 마찰음: 공기가 나오는 발음 기관의 공간을 좁혀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 ㄷ. 파찰음: 파열 후에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

나. 공명자음

- ㄱ. 비음: 여린입천장과 목젓을 내려 공기가 코로 들어가도록 하여 내는 소리

- ㄴ.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러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 장애음에 나타남>

- 가. 예사소리(평음)
- 나. 된소리(경음)
- 다. 거센소리(격음)

<목청의 떨림 여부에 따른 분류>

- 가. 울림소리(유성음)
- 나. 안울림소리(무성음)

cf. 1. 비음과 유음은 항상 유성음으로 발음된다.

2. 장애음들은 기본적으로 무성음이지만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음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3) 현대 국어 자음 체계(표준발음법 기준)

♣ 표준발음법의 자음의 체계에 대한 규정 ♣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ㅋ, ㆁ, ㄷ, ㅌ,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ㆁ, ㅍ, ㅎ

조음방법		조음 위치		입술소리	혀끝소리	센입천장소리	여린입천장소리	목청소리
		파열음	파찰음					
장애음	파열음	예사소리		ㅂ[p]	ㄷ[t]		ㄱ[k]	
		된소리		ㅃ[p']	ㅌ[t']		ㅋ[k']	
		거센소리		ㅍ[p ^h]	ㅈ[t ^h]		ㅋ[k ^h]	
	파찰음	예사소리				ㅈ[tʃ]		
		된소리				ㅉ[tʃ']		
		거센소리				ㅊ[tʃ ^h]		
	마찰음	예사소리			ㅅ[s]			ㅎ[h]
		된소리			ㅆ[s']			
		거센소리						
공명음	비음		ㅁ[m]	ㄴ[n]		ㅇ[ŋ]		
	유음			ㄹ[l/r]				

4) 한국어 자음의 특징

- (1) 대립되는 소리의 수적인 차이: 다른 언어는 장애음이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한국어는 세 종류로 분류된다. 그리고 순치음, 권설음, 목젓음, 인두음이 없다.
- (2) 대립되는 소리의 질적인 차이: 한국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없고 유기성(aspiration)의 대립 즉 격음>평음>경음의 대립이 있다.

5) 한국어 자음의 제약

- (1) /ㄹ/과 /ㅇ[h]/은 단어의 첫소리로 쓰이지 않는다.
- (2) 서양 외래어와 일부 의존명사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어두에 오는 /ㄴ/이 모음 /ㅣ/나 반모음 /y/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두음법칙)
- (3)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발음될 수 없다.(예: 값도[갑또])
- (4) 어두 자음군과 어말 자음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strike → 스트라이크, milk → 밀크

Ⅲ. 음절

1. 음절(音節) :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2. 한국어의 음절 구조

- 1) 모음
- 2) 자음+모음
- 3) 모음+자음
- 4) 자음+모음+자음

학습 내용 자가 점검 문제

1. 음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2. 자음과 모음의 음성적 특성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3. 자음과 모음의 분류 기준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